

A photograph of four young people (two women and two men) performing a traditional Korean dance on a stage at night. They are all in a traditional 'namsam' (prayer) pose with their hands clasped in front of their chests. The background is dark with stage lights and some structures visible.

니가 가 라 라 오 스

딘운파라가 전하고픈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10월호

농사일은
모든 이웃이 함께?

결혼식엔
돼지 마리와 닭 4마리
필요하다?

라오스 초등학교
영어 성적을
라온아씨가
결정하다?



목 차

- ㄱ 오스오스라오스
- ㄴ 나몬느아를 소개합니다
- ㄷ 활동보고
- ㄹ 개인에세이

10월 한 달, 딘운파라 각자에게 가장 의미 있고 자신 있는 소식을 소개합니다!

7. 오스오스 라오스



7. 오스오스 라오스



딘이 모르고 스쳐 지나간 나몬느아의 하루하루

딘의 영어 CLASS와 나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김태우 = **딘, DIN**

“ 하루하루를 라온아미처럼 살려고 했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던 나에게 문득 계속 해오던 아이들과의 교육에서 그 친구들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려 하는 걸 느꼈어 또한 나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걸 알았어.

항상 밤마다 우리 집에서 해오던 아이들 영어 수업도 나는 그냥 해야 되는 줄만 알았지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던 나에게 큰 깨달음을 준 것 같아. 즐거운 친구가 되려고만 했지 정작 지금 찰나의 즐거움을 놓치고 있었던 나에게 너무 반갑고 즐거운 소식인 것 같아. 꼭 교육만이 아니라도 이제 나는 이 친구들에게 더 다가가려 해. 그리고 이 순간 찰나를 놓치지 않으려 해.

”

7. 오스오스 라오스



딘이 모르고 스쳐 지나간 나몬느아의 하루하루

딘의 영어 CLASS와 나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항상 게임하고 영어 공부하러오는라(14)

저녁 영어 클래스 단골 손님 바무아(30)형님



저녁 영어 수업을 꼭 필참하는 위(10), 양(10), 썬니(11), 니아(10)



저녁 8시는 되어 시작하는 우리 저녁반 영어 CLASS



힘들지만 오늘 하루도 마무리 되어갑니다!! 유후~



자연애호가 'WOON'이 바라본 동물의 마을 나몬느아

당연한 듯 함께하지만 한국인에게겐 당연하지 않은 동물들과의 동거

성 룡 = **운, WOON**



“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목놓아 울기 시작하는 닭들이 아침을 알리는 마을 나몬느아. 도시는 물론 한국 시골에서도 한꺼번에 다 같이 보기 힘든 동물들이 여기서 또 하나의 마을 주민으로써 인간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한 달 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곤 하는 동물들, 그들의 모습을 보여 주려합니다.

”

7. 오스오스 라오스



자연애호가 'WOON'이 바라본 동물의 마을 나몬느아

당연한 듯 함께하지만 한국인에겐 당연하지 않은 동물들과의 동거



소랑 사람이 함께 걸어 다니는 모습이 나몬느아의 일상이다



소, 개, 돼지, 닭, 오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

7. 오스오스 라오스



자연애호가 'WOON'이 바라본 동물의 마을 나몬느아

당연한 듯 함께하지만 한국인에겐 당연하지 않은 동물들과의 동거



덩치가 제일 큰 소가 겁이 제일 많다



사람들이 샤워하는 공간을 닭들이 점령하고 있다

7. 오스오스 라오스



놀이터 디자이너 'FA'가 바라본 라오스 Play(워싱)

내 동생들이 하루 10시간을 해도 지겨워하지 않는 놀이!!



장예찬 = **파, FA**

“ 나몬느아 마을에 온 지 1달이 되는 날 멩 때리다 문득 생각에 잠겼어. 내가 왜 라온아띠에 지원했는지. 한국에선 중요한 4학년이라는 시기에 기 나긴 5개월을 투자하여 왜 라오스에 오려고 했는지. 그러다 지원서를 읽었는데, 지원서에 놀이터 디자이너라는 꿈을 가지고 먼 미래엔 라오스에 놀이터를 지어 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라오스에 온지 8주 짜 되는 날에서야 생각이 났어. 나몬느아 마을을 떠나게 될 때 쯤에 말 이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생들이 하는 놀이를 구경하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 고무줄로 4~5개의 놀이를 하루종일 할 때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재밌어하며 지켜만 보고 있었던거야. 그래도 이제서야 생각이 난 것이 정말 다행이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 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꽤 많이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게임방식을 다 알고 있었거든ㅎㅎ 그래서 한국의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라오스의 놀이를 소개해주려고 해. 남동생들이 10살부터 16살까지 하루종 일 지겹도록 이 놀이를 해! 놀이 이름은 몰라. 고무줄로 하는 놀이야. ”



놀이터 디자이너 'FA'가 바라본 라오스 Play(워싱)

내 동생들이 하루 10시간을 해도 지겨워하지 않는 놀이!!

1



각자 고무줄을 나뭇가지에 걸어요.

2



나뭇가지에 고무줄을 걸어요.

3



신발로 나뭇가지를 쳐서 고무줄을 내보내요.

4



나뭇가지 밖으로 보낸 고무줄을 가져요.

7. 오스오스 라오스



과자중독 'LA'가 바라본 라오스 과자 BEST5!



나몬느아에서 보낸 10월 한 달.. 내가 가장 먼저 배운 몽말은 숫자였다.. 과자를 계산하기 위해..
나몬느아 SHOP들을 투어하며 주인아줌마 아저씨들과 안면을 트고
맛있는, 더 맛있는 과자를 찾기 위해.. 새로운 과자에 과감히 도전하고 그 성공과 실패를 거듭한 결과!
드디어 보고서에 올리는 나몬느아 과자 BEST5!



7. 오스오스 라오스



과자중독 'LA'가 바라본 라오스 과자 BEST5!

BEST 5



아키코 초코막대과자

가격 ★★★★★
(500깍 = 70원)
양 ★★★★★
맛 ★★★★★
당도 ★★★★★

한국에서 학교 끝나고
맨날 사먹던 그 과자
맛을 라오스에서 만날
줄이야

BEST 4



질소 과자

가격 ★★★★★
(500깍 = 70원)
양 ★★★★★
맛 ★★★★★
당도 ★★★★★

배고플 때는 한 입이면
끝나는 질소과자.
그치만 짹짹한 과자 중
에는 이게 최고다. 맥
주 안주로 딱이다.

BEST 3



베트남 아저씨가 파는 머핀

가격 ★☆☆☆☆
(2500깍 = 320원)
양 ★★★★★
맛 ★★★★★
당도 ★★★★★

3일에 한번 오토바이
를 타고 머핀을 팔러
오신다. 라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베
트남 아저씨였다. 진짜
오~라고 인사했더니 좋
아하셨다.

7. 오스오스 라오스



과자중독 'LA'가 바라본 라오스 과자 BEST5!



내 단골가게, 새로운 과자가 자주 들어온다!



이추머니가 얼마전 냉장고를 새로 구입했다.
함께 손을 붙잡고 기뻐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더 많이 들어온다!

BEST 2



타로맛 나는 음료수 (남반)

가격 ★★★☆☆
(2000킵 = 250원)
양 ★★★★★
맛 ★★★★★
당도 ★★★☆☆

센터 옆 슈퍼 마저씨가 얼마 전부터 개시한 음료수! 아저씨 기분에 따라 음료수 당도가 다른 것 같다. 더워서 빨래가 잘 마를 것 같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날일 때 마시면 정말 행복하다.

7. 오스오스 라오스



과자중독 'LA'가 바라본 라오스 과자 BEST5!

BEST 1

크림이 들어있는 초코 과자

가격 ★★★★★

(500꺀 = 70원)

양 ★★★★★☆☆

맛 ★★★★★★

당도 ★★★★★★

우리 집 시집간 둘째 여동생
이 사온 걸 한입 먹고는...!
마켓에서 봉지째 사서 매일
매일 한 개씩 꺼내먹고 있다.
보약처럼. 파란색은 정말 맛
있다. 한국 과자보다 맛있다.



나. 나몬느아를 소개합니다

- 나-1. 나몬느아는?
- 나-2. 우리가 관찰한 나몬느아
- 나-3. 나몬느아 친구를 소개합니다.



ㄴ. 나몬느아를
소개합니다

ㄴ-1. 나몬느아는?



나. 나몬느아 소개

나-1. 나몬느아는?

특특타고 15분, 산 길을 따라 올라오면 위치한 작은 마을
라오스의 세 종족 중 몽족이 사는 마을
인구 수는 약 1,115명.

나몬느아에는
집과, 여러 개의 샵, 우리가 활동하는 센터,
초등학교, 강가, 농장이 있다.

사람 수 보다 많을 게 분명한 닭, 개, 소, 돼지들도 있다.



나. 나몬느아 소개

나-1. 나몬느아는?

나몬느아는 어떤 마을?

딘 (태우) : 수레바퀴다. 생각 외로 잘 돌아가는 마을,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서 유지됐으면!

운 (룡) : 가 족,

파 (예찬) : 어렸을 적 명절에 뛰어 놀던 할머니 집 같은 곳.

라 (재원) : 복잡복잡 소꿉놀이 할 때처럼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는 마을.

ㄴ. 나몬느아를
소개합니다

ㄴ-2. 우리가
관찰한 나몬느아



딘운파라가 바라본 나몬느아 ㄱ to ㅎ



ㄱ. 똑같은 신발이 많아 자신만의 신발 표시를 한다.

'파'의 생각 : 옆집 지나가다 남동생 특유의 신발 표시를 보고 그 집에 남동생이 있는 걸 알았어ㅎㅎ



ㄴ. 나몬느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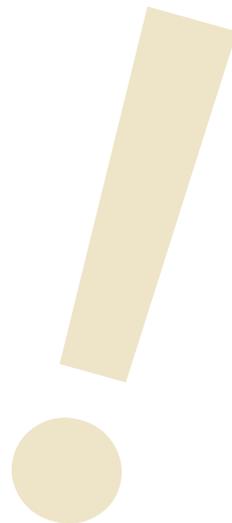
ㄴ-2. 우리가 관찰한 나몬느아

딘운파라가 바라본 나몬느아 7 to 8



ㄴ.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몽족은 일을 하지 않는다.

'라'의 생각 : 보름달이 뜨는 날이라 우리가족들이 농장에 가질 않았어!!



딘운파라가 바라본 나몬느아 7 to ㅎ



ㄷ. 달을 가르킬 때 손가락으로 가르키면 안된다.

'파'의 생각 : 보름달이 뜬 날 샤워를 하며 달이 밝아 손전등이 필요 없다며 손으로 달을 가리키니 마니가 몽족은 달을 가리킬 때 그렇게 가르키면 안 된다고 했다ㅎㅎ



딘운파라가 바라본 나몬느아 ㄱ to ㅎ



르. 몽언어는 영어로 표기한다.

'라'의 생각 : 원래 있던 몽문자는 이제 사라지고, 대신 언어를 영어로 표기해.
우리가 기존에 쓰는 영어와 발음은 완전히 달라. 그런데 나몬느아의 많은 사람들이 알파벳을 쓰고 읽을 줄 모르니 문맹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어.



딘운파라가 바라본 나몬느아 7 to 8



□. 품앗이

'운'의 생각 : 한국은 기계화된 농업으로 인해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라오스는 마치 한국의 전통인 품앗이 같은 전통이 남아있어 온 마을 주민들이 서로 도와가며 농사를 짓는다.



딘운파라가 바라본 나몬느아 7 to ㅎ



시. 안녕을 기원하는 Bassi ceremony(바시)는 몽족의 전통이다.

'라'의 생각 : 내가 (가만히 있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난 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작은 bassi ceremony를 해주셨어. 감동..... ♡

'운'의 생각 : 재원이와 예찬이가 몇 일 뒤면 이 마을을 떠나게 되는데, 한 달동안의 고
마움과 다른 마을에서의 무사평안을 비는 bassi ceremony 해주셨다



우리를 위한 마을 bassi ceremony

딘운파라가 바라본 나몬느아 7 to 8



○. 나이반(마을의장)이 마을의 삼권 [사법, 입법, 행정] 을 지닌다.

'딘'의 생각 : 우리 아버지가 나이반이신 줄 알았는데.. 이런??

'파'의 생각 : 나몬느아의 나이반은 남자2, 여자로 총 세 분이셔.



- ✓ '운'의 아버지
- ✓ 전 교육전담 나이반



- ✓ '딘'의 아버지
- ✓ 전 나이반



- ✓ 한번도 만나 뵈지 못함

딘운파라가 바라본 나몬느아 ㄱ to 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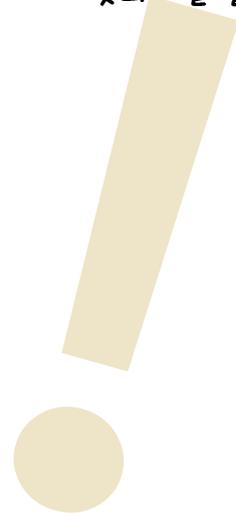
ㄷ. 세제로 얼굴과 몸을 닦는다.

'라'의 생각 : 라오스는 공산품이 굉장히 비싸서, 클렌징폼이나 바디샤워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

'운'의 생각 : 비누를 사용하면 될 텐데 굳이 세제를 사용하는 걸 보면 세제가 옷의 패를 말끔히 제거해주는 것을 보고 몸도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미신이 있는 것 같아.



나몬느아 마을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바로 그 세제!



딘운파라가 바라본 나먼느아 7 to 8



8. 몽족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

'딘'의 생각 : 우리 아버지가 농장에서 벌써 세 번이나 쓰러지셨대..
걱정이긴 한데 몽족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고 바시를 한다지 뭐야??



딘운파라가 바라본 나먼느아 7 to 8



ㅋ. 몽족은 결혼식에 닭4마리와 돼지1마리를 잡는다.

'라'의 생각 : 실로의 먼 사촌이 결혼한다고 해서 라온아띠가 결혼식에 출동한 날!
결혼식은 아침 9시에 시작됐어. 몽족이 일찍 결혼 한다는 건 알았는데, 신부 나이가 12살이더라구..!
그리고 결혼식에는 항상 닭4마리와 돼지마리를 잡아 다같이 먹는데. 마을 잔치 같았어.



ㄴ. 나몬느아를
소개합니다

ㄴ-3. 우리의
나몬느아 친구를
소개합니다.



나. 나몬느아 소개

나-3. 우리의 나몬느아 친구를 소개합니다.



DIN'S friend

바 무아(30)



- ✓한 가정의 아버지
- ✓옆집 형님
- ✓학구열이 엄청남
- ✓생각 보다 나이가 적은. 형 하기로 함.

라 (14)



- ✓ 위의 오빠
- ✓이 친구 역시나 옆집..
- ✓우리 집과 사촌 집으로 알고 있음

뽀니 (10)



- ✓ 나몬느아 공식 이쁜 이 뽀니.. 내 생각
- ✓수줍게 웃는 것이 특 기임.

빠니아 (15)



- ✓우리 집 여동생의 절친이자 사촌언니
- ✓웃으면 귀엽다.
- ✓바느질이 특기

티 (2)



- ✓ 우리 집 조카 티 남 자아이 아님
- ✓나한테 잘 오지 않음.
- ✓삐침

나. 나몬느아 소개

나-3. 우리의 나몬느아 친구를 소개합니다.



woon's friend

남마이르티 (10)



- ✓ 매일 수업듣는 학생
- ✓ 지금 옆에 앉아있다
- ✓ 매일 아침에 학교 쉬는 시간마다 컴퓨터 하러 센터러 온다

까일로 (11)



- ✓ 남마이르티 절친
- ✓ 남이랑 항상 붙어 다닌다
- ✓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짚라 (8)



- ✓ 비공인 미스나몬느아
- ✓ 내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 ✓ 장난끼가 많다

빠양 (17)



- ✓ 우리집 여동생
- ✓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한다
- ✓ 매일 양 하고 부르면 샤르르 웃는다

시아 (0살)



- ✓ 센터 고양이
- ✓ 보고싶다 많이
- ✓ 비자트립을 다녀온 이후 종적을 감췄다.
- ✓ 제발 누가 잡아 먹은게 아니기를

나. 나몬느아 소개

나-3. 우리의 나몬느아 친구를 소개합니다.



FA'S friend

뽕 니아



- ✓ 엄마의 언니
- ✓ 뽕, 카이 엄마
- ✓ 수줍음이 많으시다.
- ✓ 엄마의 얼굴보다는 품채가 닮았다.

씨 니아



- ✓ 엄마의 친구
- ✓ 농사일을 같이 한 분
- ✓ 눈 다쳤을 때 나를 위해 젖을 짜주신 분

실 (23)



- ✓ 마니의 언니
- ✓ 비엔티안에서 재봉틀 공장에서 일한다.
- ✓ 만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잘 챙겨준다.

죵 (16)



- ✓ 둘째 남동생 절친
- ✓ 축구를 좋아한다.
- ✓ 이름이 2개(죵&냐)
- ✓ 매일 밤 우리집에 온다.

아송 (10)



- ✓ 넷째 남동생 절친
- ✓ 앞집에 산다.
- ✓ 수줍음이 많아 아직 인사를 하지 않는다.

나. 나몬느아 소개

나-3. 우리의 나몬느아 친구를 소개합니다.

LA'S friend

쓰

내가 온 첫 날
나한테 예쁜 꽃을
줘준 쓰!



리짱



볼살이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귀여운 리짱! 며칠을 구애한 끝에 드디어 안을 수 있었다.

봄베



컴퓨터 클래스 수제자!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알던 그 누구와 너무
닮아서 점이 간다.

ㄷ. 활동보고

ㄷ-1. 활동지 소개

ㄷ-2. 나론느야 하루 일과

ㄷ-3. 활동 내용



㉔. 활동보고

㉔-1. 활동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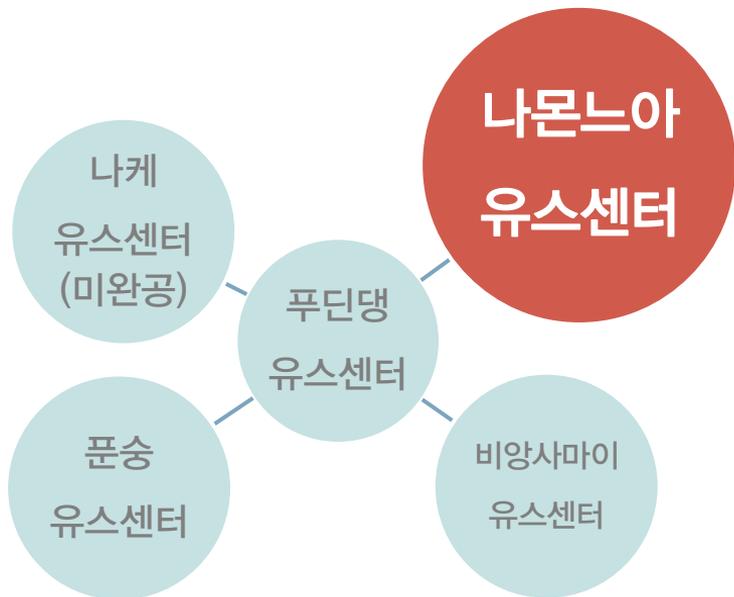


ສູນປະຊາກອນຊຸມຊົນ ທີ່ເມັດເກຣອນ ແຂວງ
C.L.C of NATION NEUA

ໂຮງງານຢັງແຕ່ງຢາງມາວາມັດພະນາຊີວະທັມລິວງຽວາວ
ແຂວງວຽງຈັນ ຕ້ອງການຢາງມາວາຈຳນວນຫລາຍ ວາດາຢຸດຕິກຳ
ຍົມຕ້ອນຮັບພວກທ່ານເອົາຢາງມາຂາຍ ໃຫ້ໂຮງງານ
老挝万象力量生物橡胶加工厂大量收购橡胶 价格优惠
欢迎广大胶农送货出厂
ຍົມເຊຣຸດຊາຍ ແຂວງຫົວພັນ ແຂວງວຽງຈັນ ຫົວ: 030-5103388
地址: 万象省新河县麻松村 电话: 020-55195476

㉔. 활동 보고

㉔-1. 활동지 소개



푸딩댕 유스센터를 중심으로 총 네 개의 유스센터가 있다.

푸딩댕 유스센터는 각 마을에 위치한 나머지 네 개의 센터를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라온아띠의 가장 큰 임무 역시 네 개의 센터에서 마을살이하며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는 것이다.

9월 22일부터 시작해 10월,
우리 라오스팀의 활동지는 **나몬느아 유스센터**다.

㉔. 활동 보고

㉔-1. 활동지 소개



나몬느아 유스센터 Namone neua Youth center

13년도 나몬느아 유스센터 개관

(전남대 봉사자와 함께, 나몬느아 스태프 여자6, 남자6 선발 및 교육 시작)

14년도 충남대 봉사자 상반기, 하반기 1,2팀이 센터 공사 진행.

14년도~ 15년 초 성남시 봉사자들과 함께 센터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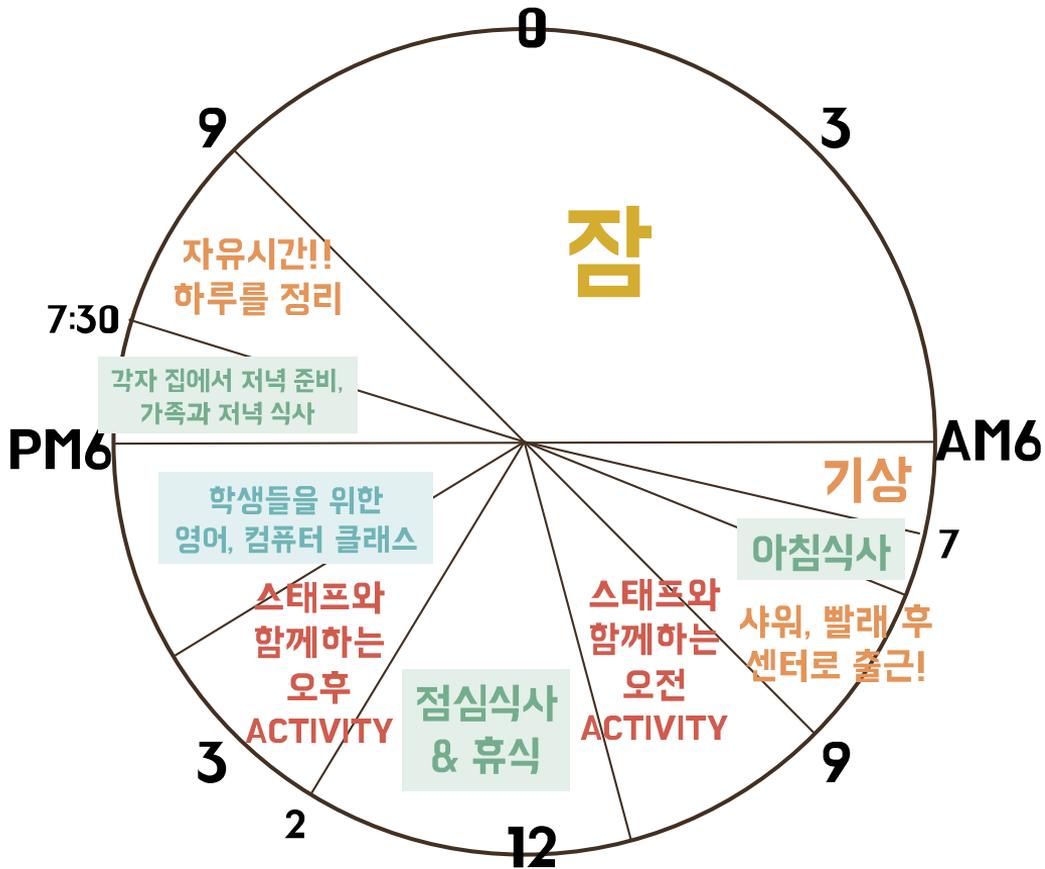
15년도 하반기 라온아띠

㉔. 활동보고

㉔-2. 나몬느아 하루 일과



ㄷ-2. 나몬느아의 하루 일과를 소개합니다



㉔. 활동보고

㉔-3. 활동 내용



㉔. 활동 보고

활동 내용



10월 나몬느아



11월 나몬느아



11월 나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0일 동안의 나몬느아 마을 살이를 마쳤다.
이제 라오스팀은 두 명 두 명 각자 다른 마을에서 활동하게 된다.

나몬느아 마을 살이 딱 한달 차 라온아띠, 푸딘댕 센터 직원, 나몬느아 스태프 모두가 함께 라온아띠의 향후 활동지에 대해 회의했다. 그 결과 모두 우리 라온아띠가 나몬느아에서 적어도 한 달 더 활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결론 내렸고, 딘과 운 (태우, 룡)이 나몬느아에 남기로 라와 파 (재원, 예찬)가 11월 1일 나케로 활동지를 옮기게 되었다.

딘과 운 (태우, 룡)은 라와 파(재원, 예찬)가 활동지를 옮긴 후 남은 둘이서 이어나갈 11월의 나몬느아 활동에 대해 라와 파 (재원, 예찬)는 나몬느아와의 이별 준비를 했다.

㉔. 활동 보고

활동 내용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비자트립	2 중국인들과 캠프	3
4 중국인들과 캠프	5	6	7	8 나몬느아 마을 살이	9	10
11	12	13	14	15 나몬느아 마을 살이	16	17
18	19	20	21	22 나몬느아 마을 살이	23	24
25 나몬느아 마을 살이	26	27 라오스 국경일 -boat race -소원 빌기	28 라온아피를 위 한 bassi ceremony	29 Party!	30 비자트립	31 비자트립

㉔. 활동 보고

활동내용

(1)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국인들과의 캠프



2박 3일동안 중국인들과 함께 방을 쓰며 문화교류를 했어.

첫째 날은 PYC센터에서 푸딩당에 대한 소개를 듣고 또 서로를 소개 했고 둘째 날은 다같이 나케 마을에 가서 울타리를 심고 문화공연을 했어. 라오스의 라오족, 몽족 그리고 한국인 마지막으로 중국인 총 4개 민족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지.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공연을 구경했어. 둘째 날 밤에는 중국인 친구들이 우리 네 명이 망고를 그렇게 좋아한단 얘기를 듣고 다운타운에서 직접 망고 썬크를 사다 주기도 했어. 마지막 날은 중국인 친구들이 루앙프라방을 간다고 새벽 6시에 출발했더라고. 우리는 모르고 그냥 자고 있어서 작별 인사는 못했지만..

(2) 나몬느아 마을살이 1. 센터 교육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4시부터 6시까지 영어수업과 컴퓨터수업을 라온아띠가 주업무로 맡았어. 달라진 것이 있다면 primary school grade 1~3 컴퓨터 수업을 high school 컴퓨터 class로 바꾼거야. 큰 아이들에게 컴퓨터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지난 달과 다르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랬기 때문에 늘어지는 부분도 있었어. 정해진 활동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다른 활동을 시도하지 않았거든.. 이번 달은 라온아띠에게 나몬느아 활동을 되돌아보는 달이었어.

㉔. 활동 보고

활동내용

(2) 나몬느아 마을살이 3. 나몬 딸랏(마켓) 장보기

마켓에 가면 초코 과자도 있고 옷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도넛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마요네즈도 있고 소시지도 있고 순대 비슷한 것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라오김치도 있고 밀로도 있고 유채도 있고 참새도 있고



오토바이가 모잘라 경운기를 타고 마켓에 다녀 오는 중



마켓에서 파의 남동생들이 사준 선물들!



30일 동안 마을에 있으면서, 가족들이 마켓가기를 기다렸어. 마켓까지 가려면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10~20km로 30분을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마을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였어ㅎㅎ 특히 파(예찬)와 라(재원)는 마켓을 데려다 달라고 파업을 하기도 했어ㅎㅎ 나몬 딸랏은 방비에 딸랏과 다르게 작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카우찌(빵), 그리고 생필품들이 많았지. 우리 주로 과자를 많이 샀지만 말이야. 그리고 관광지인 방비에 딸랏보다 저렴해서 좋았어. 마지막 날엔 경운기를 타고 다같이 딸랏에 갔었지. 좋은 경험이었어!

(2) 나몬느아 마을살이 4. 농장 일손 돕기



나몬느아 거의 모든 가정은 농업에 종사해. 그래서 라온아띠가 홈스테이 하는 가족들도 모두 농장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평일이나 주말에 각자 가족의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곤 했어. 파(예찬)네 가족은 쌀 농장 2개와 채소 농장 라(재원)네 가족은 고무 농장, 야채 농장, 쌀 농장이 있었지. 10월 달은 쌀 수확 시기여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일을 해. 여기는 기계가 부족해서 한국에서 한 번에 끝낼 일을 세 번에 걸쳐서 일을 해.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ㄷ. 활동 보고

활동내용 5. 몽족 전통 의상 체험

(2) 나몬느아 마을살이



(2) 나몬느아 마을살이



11월이면 나몬느아 마을을 떠나는 라, 파 (재원, 예찬)를 위해 마을 어르신 분들이 작은 bassi (바시) ceremony를 해주셨어. 맨 첫 번째 사진에 보이는 하얀 실을 우리 팔에 묶어주시며 한 분 한 분 안녕을 기원하는 말씀을 해주셔. 물론 라오스 말이라 이해를 못하긴 했지만 그 마음은 우리에게 전달된 것 같아. 바시가 끝나고 팔찌 수를 세어보니 거의 20개가 되더라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원해주신거지! 든든했어.

㉔. 활동 보고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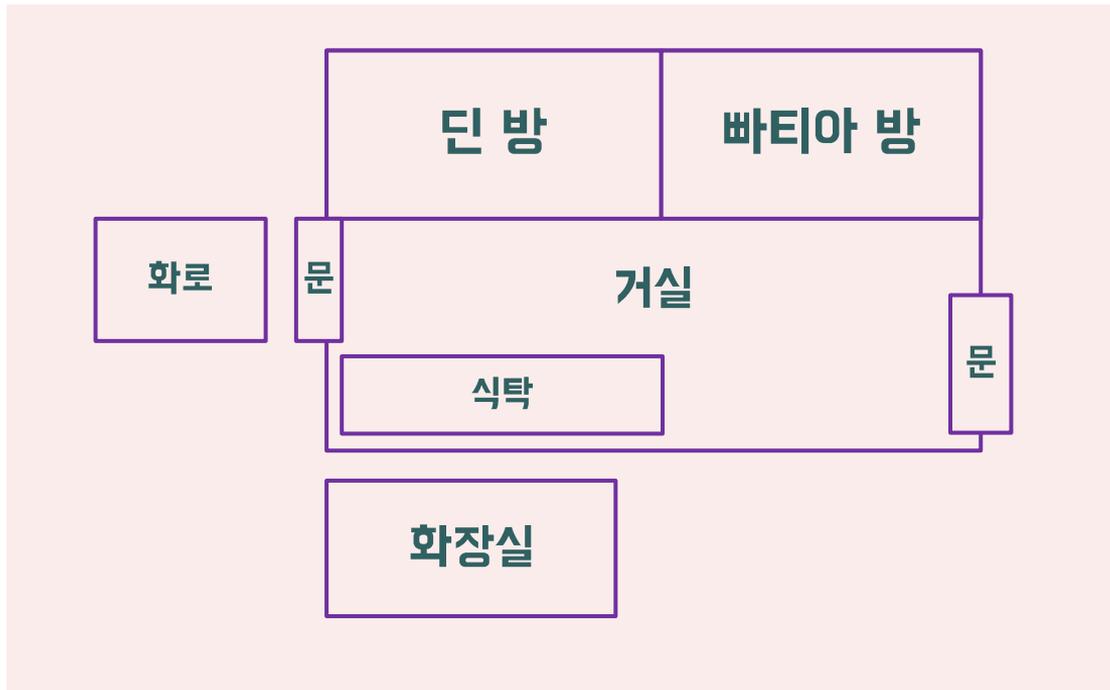
(3) 라온아띠 씬 ; 라오스 축제 '억판싸'



10월 27일은 '억판싸' 라고 라오스 축제가 있는 날이었어. 오랜만에 나 몬느아 마을을 나와 방비엥 시내로 라온아띠가 출동했지. 오전에는 남송강에서 하는 '보트레이스' 를 구경하고 오후에는 PYC로 돌아와 남송강에 소원을 빌어 배를 띄워보내는 의식을 준비했어. 꽃 배에 돈과 함께 초를 꽂고 절에서 예배를 드린 후 다 함께 남송강으로 배를 띄우러 갔지. 초에 불을 켜고 각자의 소원을 빌며 강에 배를 띄워 보냈어. 물살이 쉼 없이 강을 건너는데 힘들긴 했지만... 내 소원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



딘 (DIN) 사는 그 집 심화편



㉔. 활동 보고

'라온아띠'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나몬노야' 마을에서의 우리집



딘 (DIN) 사는 그 집 심화편



딘이 사는 집! 앞으로 한 달을 더 지낼
집이며 거실풍경과 가장 중요한 화장실까지





딘 (DIN) 사는 그 집 심화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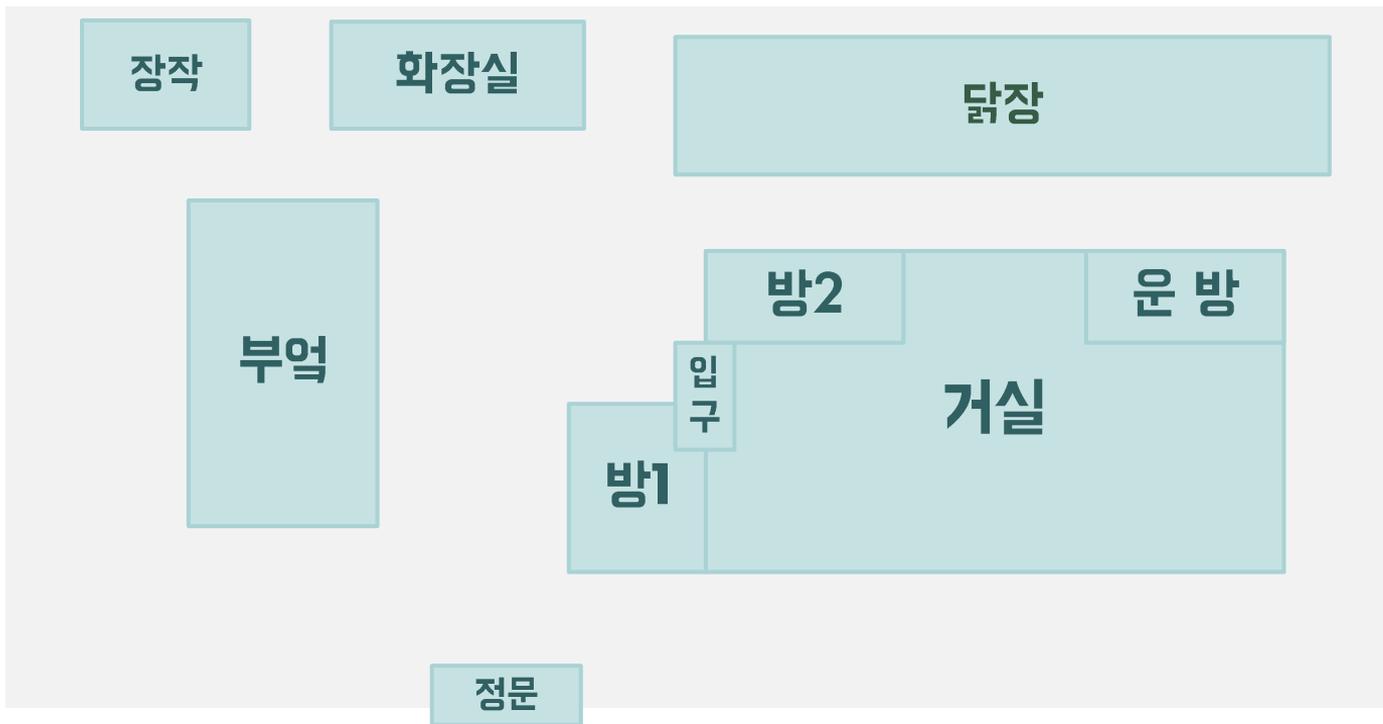
주방이 따로 없는 우리 집에서는 화로를 이용하여 불을 피우고 냉장고 옆에서 음식을 한답니다.

‘라온아띠’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나몬노야’ 마을에서의 우리집



운 (WOON)이 사는 그 집 심화편



ㄷ. 활동 보고

'라온아띠'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나몬느야' 마을에서의 우리집



운 (WOON)이 사는 그 집 심화편



운이 사는 그 집의 전경



ㄷ. 활동 보고

'라온아띠'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나몬노야' 마을에서의 우리집



운 (WOON)이 사는 그 집 심화편



운이 살고 있는 방과 거실 그리고 부엌



ㄷ. 활동 보고

'라온아띠'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나몬노야' 마을에서의 우리집



운 (WOON)이 사는 그 집 심화편



운이 샤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하는 수도시설과 화장실 전경

ㄷ. 활동 보고

'라온아띠'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나몬노야' 마을에서의 우리집



운 (WOON)이 사는 그 집 심화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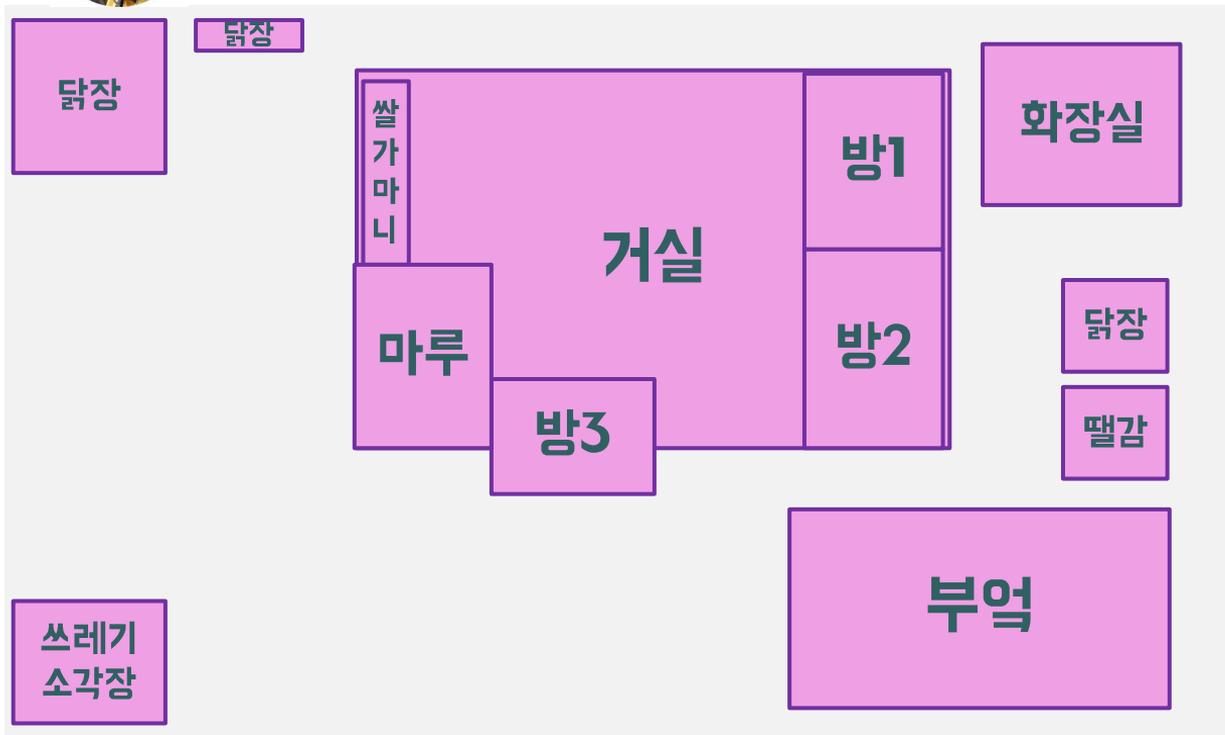
운이 샤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하는 수도시설과 화장실 전경

㉔. 활동 보고

‘라온아띠’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나몬느야’ 마을에서의 우리집



파(F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 ✓ 쌀가마니 : 가족의 직업이 농부
- ✓ 방 1 : 타이, 통, 롱의 방
- ✓ 방 2 : 마니와 내 방
- ✓ 방 3 : 엄마, 실, 버, 팔라이 방

㉔. 활동 보고

‘라온아띠’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나몬느야’ 마을에서의 우리집



파(F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㉔. 활동 보고

‘라온아띠’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나몬느야’ 마을에서의 우리집



파(F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라온아띠'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나몬느야' 마을에서의 우리집



파(F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 ✓ 책상 : 책상이 아니라 캐리어를 책상으로 사용
- ✓ 우리방에만 유일하게 매트가 있었다. (다른 가족은 사면트바닥에이불을 깔고 잔다)
- ✓ 우리집은 거실에 불이 하나라 밤이되면 우리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옷, 모자, 가방 등 다양한 물품을 걸어두고 지내서 우리 방을 들어오는 마을 사람들은 팔락(시장) 같다고 웃었다.



㉔. 활동 보고

‘라온아띠’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나몬느야’ 마을에서의 우리집



파(F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 부엌전경
부엌이 되었다가, 밥
먹는 식당이 되었다가,
식품보관소가 되었다가,
자전거, 오토바이 보관
소가 되었다가, 정말 다
양하고 실용적으로 사
용되는 곳

'라온아띠'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나몬느야' 마을에서의 우리집



라(L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㉔. 활동 보고

‘라온아띠’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나몬느야’ 마을에서의 우리집



라(L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㉔. 활동 보고

‘라온아띠’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나몬느야’ 마을에서의 우리집



라(L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LA
캐리어

침
대

침
대



ㄷ. 활동 보고

'라온아띠'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나몬느야' 마을에서의 우리집



라(L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부엌



ㄷ. 활동 보고

'라온아띠'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나몬느야' 마을에서의 우리집



라(L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화장실



ㄷ. 활동 보고

'라온아띠'우리집을 소개합니다 '나몬느야' 마을에서의 우리집



라(LA)가 사는 그 집 심화편

샤워장, 찜을 몸에 두르고 샤워합니다.



르. 개인에세이



르. 개인 에세이

DIN의 2번째 '30일'간 이야기

A photograph showing a man in a dark blue t-shirt and a black cap sitting on a wooden bench. He is surrounded by several children of various ages, some sitting on the bench and others standing. They are in front of a building with wooden walls and windows. The scene is outdoors and appears to be in a rural or developing area.

두 달간 나는 많은 고민을 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여
기 왜 와서 이런 걸 하고 있는 지? 내가 진정 원했던 것인지?
살면서 내 맘대로 대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어떻게 되었든 내
가 결정하는 거고 나 스스로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후회하지 않고 가보려 한다. 잘못해도 괜
찮으니 천천히 오랫동안 걸어 나가려 한다.
무심코 생각했던 일들,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 내 일부가 된
것을 느꼈다. 고맙고 감사하다. 더욱 더 이 순간을 더 느꼈으
면 한다.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 지기 시작하는 11월이 성큼 다가왔다. 라오스는 남북으로 길쭉한 나라라서 위도에 따라 계절의 영향이 다르다. 남쪽은 건기 우기만 나뉘는 건데 언제나 덥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북쪽 지방은 겨울이 오면 낮은 여름처럼 더워도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추워진다. 밤에 잘 때 두꺼운 이불이 필요할 정도다. 한국의 가을처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을 같은 느낌은 전혀 없다. 추워지고 있는 지금도 라오스 하늘의 높이는 그대로며 푸른 나무들은 그 색을 언제나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WOON의 '30일'간 이야기

내가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자원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마치 사람이 피가 나는 상황에서 지혈을 해주는 응급처치 수준밖에 될 수가 없다. 상처가 나으려면 응급처치 이상의 의료행위가 필요 하듯이 이들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지금 라오스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성장률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마 몇 십년 이내에 지금의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자원활동자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응급상황에서 지혈을 해주지 않으면 과다 출혈로 죽을 수도 있듯이 우리는 이 나라가 지금 당장의 빈곤으로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무사히 빈곤에서 탈피하여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난 달에 했었던 고민의 답은 이로써 명쾌해졌다. 스스로 나태해졌다는 죄책감도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강박도가질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저 우리가 가지 못한 것은 배우고 반대로 이들이 가지 못한 것은 주면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 된다.



“ 벌써 또 30일이 흘러 나몬느아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발버둥쳤다. 20번 이상의 밥을 함께 먹고 나서야, 한국인이 아니라 편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다. 드디어 룸메이트가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남동생들이 샤워가 끝나면 수건을 가져다 달라고 말하고, 또 매일 밤 부엌에 둘러앉아 저녁준비하며 수다를 떨고, 남동생 여자친구 고르기에 동참하고, 주말엔 추수철인 농장에 따라가 벼를 베었다. 센터 일이 끝나면 당연하다 듯이 집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당연한 일상들이 나몬느아를 떠나면서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나케마을에 간다고 결정되었을 때부터 우리가족들은 '나케가 지말아라.' 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나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 엄마 친구들까지 달려와 말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떠나려고 돌아보니 여기서 살아갈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앞서 말했던 다양한 아이들의 놀이를 스쳐 지나간 것, 또 우리가 가게 되는 새로운 마을엔 스텝이 없어 스텝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 못한 것, 우리가 너무 컴퓨터와 영어교육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



“ 후회하는 순간들이 늘어난다. 그 후회하는 순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는 후회가 라오스의 고민을 생각해보는 것이라면, 그것이 라오스 첫 기수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자기합리화를 한다. 왜 항상 겪고 후회를 해야 얻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이 또 하나 늘고 있다. 라오스에서 2달이 지나면서 처음 라오스에 와서 했던 행동들과 말들을 생각해본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그때는 라오스에 대해 모르고 한 말이야.’ 그러나 3달이 더 지난 후에도 똑같은 말을 할 것 같다. 하루만 지나도 라오스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지니 말이다. 11월부터 재원이가 내가 겪게 될 새로운 나케라는 마을에 고작 3번 정도 가본 것이 전부라 아는 것 없지만 이제 걱정조차 되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고 어떠한 일에 대해 계획이 필요한 우리가 이제는 가서 겪어보고 그 마을에 맞게 활동하자는 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라온아씨는 정보 없는 새로운 곳에서 지혜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같다. 물론 현지 친구들과 함께 말이다. 다가오는 11월이 설렘하면서 기대된다.

”

르. 개인에세이

LA의 '30일'간 이야기

나몬느아에서 보름 동안 매일 아침 잠을 깰 때, 한국인 줄 알았는데 라오스인 것을 깨닫는 2,3초의 찰나를 경험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이제야 정말로 이곳 라오스가 나의 현실이 된 것 같다.

10월 29일, 나의 40일간의 나몬느아 마을 살이를 마무리했다. 나는 이제 새로운 마을 나케에 살러 간다. 나몬느아는 복잡복잡, 아기자기, 소란소란 같은 단어들이 어울리는 마을이다.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가지만 어쩔 그 매일 매일의 같은 일들 속에서도 매번 소소한 재미들을 찾을 수 있었고 점차 그걸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매일 밤 샤워를 하며 실로와 함께 올라다보는 달과 별은 언제나 같은 달과 별이지만, 우린 그걸 가지고 매일 다른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매일 아침 우리 집에서 센터를 가는 길은 항상 같은 길이지만 매번 재밌었다. 한 날은 거위에 쪼이기도 하고, 한 날은 해가 너무 쨍해서 햇빛을 가릴 우산을 까먹는 나를 탓하기도 하고 그랬다.



르. 개인에세이

LA의 '30일'간 이야기



10월 한 달 동안 부끄럽지만 나는 나태했었다. 아무 생각 없이 텅구르르 그런 의미의 나태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한단 생각에 쫓기는 바람에 나태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그 '무언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동안 정체됐다. 막상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조금하고 불안한 날이 반복되던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가다가 멈춰있는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튕겨나가서 길바닥에 껌딱지처럼 붙었다. 분명 그렇게 까지 울 일이 아니었는데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영영 울었었다. 어쨌든 10월을 마무리 하면서 정리했다. 그 '무언가'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 것! 마을 살이에서 만큼은 '나는 꼭 이 건 이를꺼야!' 정하는 순간 그 생각에 나를 가두게 되는 것 같다.







ສູນກາບສຶກາຊຸມຊົນບ້ານເມງອບເໜືອ
C.L.C. OF NAMONE NEUA

마을에서 건강하게 생존 만이라도 해있겠습니다!

11월에 봐요

니가와봐라 라오스...

